

논제1

제시문 가,나,다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하는 인간에 대해 다른 반면, (나)에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릴라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나)에서 동료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카루스는 죽은 마체사를 공격하고, 사체 위로 뛰어 내리는 등 자극을 통해 죽은 마체사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카루스 외에 다른 고릴라들도 마찬가지로 마체사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으레 일상적인 행위를 반복한다.

이에 반해 (가)와 (다)에서는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과 그로써 나타나는 매장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식에서는 (가)와 (다)가 서로 양립한다. (가)에서는 죽음을 기피하고 무시하며, 죽음의 충격적 인상을 숨기고자 하는 자연적 본능에 거스르는 인간의 특수성을 제시한다. 자연적 본능이 약화된 존재로서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달리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이를 매장하여 애도함으로써 죽은 이와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하고 그 존재를 영구보존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다)에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기피한다. 죽은 이를 매장하는 것도 그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체의 부패와 같은 죽음의 추악한 인상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가)와 달리 (다)는 죽음을 끝으로 인식한다. 죽음으로써 끝을 맞이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논제 2

제시문 (라)의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집단 갑의 경우보다 집단 을의 경우에 더 높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의 완성도를 보였다. 두 실험에서 집단 갑의 경우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에 노출됐었지만, 집단 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갑에 제시됐던 배설물과 관련된 상황이 피험자들로부터 죽음을 연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제시된 배설물은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는 점에서 (다)에서 사체의 부패와 같은 끝으로서의 죽음의 추악한 면과 연관성을 가진다. (다)에서 죽음은 끝으로서, 인간에게는 기피의 대상이다. 집단 갑의 피험자들은 추악함이라는 공통점으로써 배설물과 죽음의 연관성을 인식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한다는 점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가)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설물과 죽음 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없으므로 연관성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집단 갑의 경우에 집단 을보다 더 낮은 완성도를 보였고, 오히려 친구와 같은 일상적인 단어가 죽음을 더 잘 연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현재의 생을 마치는 것이지만 완전한 존재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에서 주장하듯이 죽음을 존재의 끝으로 인식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장례식이나 제사 등 죽은 이를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기리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위한 문화가 되어 모순이 된다. 죽음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지만 완전한 정신적 존재의 끝은 아닌 것이다.